

광주 서구청장 재선 다자 구도 치러질 듯

비민주 야4당 단일후보에 서대석씨 확정

민주 김선옥·무소속 3명과 치열한 선거전

오는 10월 27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김선옥 후보,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 송재선 후보와 박금자 후보 등의 다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광주시당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과 단일후보로 서대석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야 4당은 최근 서후보와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 진보신당 류상근 후보를 놓고 서구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서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여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후보는 수락 회견문을 통해 “야 4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20년 민주당 독식의 지방 정치를 마감하기 위해 단일후보를 낸 것”이라며 “비민주 야 4당, 시민사회와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구청장 재선거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후보가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10·27 서구청장 선거는 큰틀에서 민주당-비민주 야 4당-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민주당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종식 예비후보에 이어 박금자 예비후보까지 무소속 출마로 선회하면서 무소속 후보가 송재선 예비후보까지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다자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각 후보들의 ‘조직력’이 선거결과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구지역 선거인수는 22만2000여명. 통상 자·보궐선거 투표율이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 투표율도 20~30% 이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5만~6만여 명이 투표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2만5000표 이상을 얻을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주당이 당원 정리를 통해 최종 집계된 서구지역 민주당원은 2만여 명, 당원이탈표면 없다면 숫자상으로 볼 때 민주당 김선옥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다. 김 후보의 경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3만8860표(36.

42%)를 얻었다.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을 탈당한 만큼 무소속 후보 쪽으로 이탈표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비민주 야 4당 후보인 서대석 후보도 지난 6·2지방선거에서 1만2312표(10.96%)를 얻었고,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가 1만1997표(10.68%)를 얻은 만큼 서후보도 최소한 2만4000여 표 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에서 탈당한 만큼 선거 막판 이들의 합중연횡도 배제할 수 없어 무소속 후보군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비민주 야 4당의 조직력, 무소속 돌풍 여부에 따라 선거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벨문학상에
페루 출신 작가
바르가스 요사

2010년 노벨 문학상은 남미의 거장인 페루 출신의 라틴 아메리카 문학 대표작가인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74)에게 돌아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시인은 다시 한번 고배를 마쳤다.

관련기사 12면



“턱관절장애 확실합니까?”

는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며 한때 공방을 벌였다.

김성환 인사청문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저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실상 다운계약서 작성 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리를 실제 4억7000만원에 매입하고도 2억3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세금 1392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지적하자 “매매 계약서만 작성했고 관행대로 세무사가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자필로 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수료라고 쓰여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수료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해당

대학에 문의한 결과, 제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저의 불찰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미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극존칭을 쓰고 정치적 통일과 사설상의 통일을 구분하는 등 일반 국민의 통일관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외교 수장이 되면 존칭에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취지로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병역·재산·탈세 의혹 난타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저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실상 다운계약서 작성 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제기한 허위학력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자필로 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수료라고 쓰여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수료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해당

대학에 문의한 결과, 제적이 맞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저의 불찰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미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극존칭을 쓰고 정치적 통일과 사설상의 통일을 구분하는 등 일반 국민의 통일관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외교 수장이 되면 존칭에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는 취지로 소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공’에 빠진 광주시의회 연구모임·토론행동 활발

로사항 청취, 토론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

로 실시, 연구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6대 시의회 들어 문화정책 소통 및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와 작은 도

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등 2차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달에만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개선방안, 4대 강 사업 겸증 토론회,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성폭력 방지관련 정책 토론회 등 4차례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해 지역 사회복지와 다문화 가정 등 포괄적 복지에 대해 공부중이다.

이어 조호균, 강은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연구모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모임은 일자리 창출 조례 제·개정,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의정활동을 통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사회적 기업·청년일자리 등과 관련된 단체들의 애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 FTA 전면 재협상해야”

野-美 의원 공동 성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의원 32명은 7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한미 공동성명 형식으로, 성명에 참여한 양국 의원들은 공동으로 양국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의 이해보다 더 중시하는 FTA는 악합에 불과한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

라며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 제외품목 열기 방식의 서비스 개방 조항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민주당 정동영·천정배·박주선·조배숙 최고위원과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과 민주노동당 이정희·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무소속 유성업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주말 미국 서명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 외국교과서 오류투성

“한국은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영국 교과서), “핵무기 생산 가능성이 있고 군 출신에 의해 나라가 통치된다”(이탈리아 교과서) 우리나라에 관해 아이없는 오류를 기술해 놓은 외국 교과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분석 인력이 부족해 ‘한국 바로알리기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홍우여(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수집한 외국 교과서 1207종 중 한국 관련 기술이 있는 교과서 477종에서 모두 오류가 발견됐다.

황우여 의원실은 연구원의 외국 교과서 분석 인력이 6명에 불과해 최근 3년간 수집하고도 분석하지 못한 교과서가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족석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특허증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원비)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족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여인이 (초등학생)	미취학여인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 어린이 오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www.dreamkorea.biz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둘째 않는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흙진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구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생산 취급 품목

[DK 301]	강력 접착도박 방수제
[DK 302]	온·가·열·다·목·적·용·화·방·수·제
[DK 303]	무색 젤상부 도막 방수제
[DK 305]	털코팅 수용성 투명 밋수제
[DK 306]	수퍼 드립밀 풀드
[DK 307]	균열 보수제
[DK 3000]	드립밀 풀드
[DK 1000]	드립밀 풀드

신제품 풍선 부어 사용하는 강력 접착지능 방수박스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방수제들이 내구성이 저하되어 만화 및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있어온 것입니다.
DREAM KOREA CO., LTD. GORE-TEX®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풀질보증업체입니다. 고아트스공법 지정 기관

광주·전남 대리점
광주 062)941-3226 북 구 062)433-2225 여 수 061)662-3002
남 구 062)430-5777 순 천 061)746-5556 해 남 061)532-9789
서 구 062)372-7704 나 주 061)333-7789
동 구 062)234-6698 목 포 061)242-2220